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교육
내용에 관한 관점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 현 화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교육
내용에 관한 관점 연구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 현 화

인 준 서

박현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할 과업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래 통일 후의 모습이 유토피아적인 이상화된 모습으로 서술되어 통일의 당위성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반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모습이 문제점과 남한의 일방적인 손해 쪽으로 치우쳐서 청소년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도 안 된다.

통일세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매체인 교과서는 이와 같은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통일문제 관련 국가 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통일관련 단원인 「Ⅴ.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의 서술내용이 통일을 기점으로 통일에 이르는 준비과정과 통일 후 우리사회의 모습과 과제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관련 단원에서 통일 전·후로 교과서 내용구성을 나누고 이를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그리고 비교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분야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관점의 내용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교육내용에 해당하는 총 134개의 분석대상문장을 통일 전·후를 기준으로 분류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

대효과”로 분석해본 결과, 교과서 본문 내용이 통일을 달성한 이후(19.4%) 보다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80.6%)에 많은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정에 관한 내용진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배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통일대비 관련 교과서 내용을 긍정적·부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 한국사회에 대한 내용모두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 관점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형성시기의 정권의 성향과 그 당시 대북 관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런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통일대비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분야별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서 경제 분야가 긍정적 관점에서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부정적 관점에서는 4종의 정치교과서 어디에도 경제 분야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통일이 되면 경제적 측면에 이익만 얻는 걸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에 관해 분야별로 균형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1.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6
1) 현 정부 이전 대북정책의 양상	6
2) 현 정부에서의 대북·통일정책과 통일전망연구	7
2. 통일교육과 정치교과서에 관한 연구	12
1) 통일교육과 정치교과	12
2) 통일교육과 정치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14
III.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18
1. 분석대상	18
2. 분석준거	22
1) 정치교과서 내 통일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유형분류 ..	25
2) 관점에 따른 정치 교과서 통일에 관한 분야 별 서술의 특징	28
3) 분석틀	32
①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32
②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33

IV. 주요 결과 및 논의	34
1. 분석결과	34
1)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 대상 문장의 수	36
2)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40
① 통일 대비에 관한 전체문장 관점 별 분석	41
② 통일 전·후에 따른 관점 별 문장 분석	43
3) 통일대비 관점에 관한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의 수	52
① 통일대비에 관한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	53
②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55
③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관점에 따 른 분야별 문장 분석	61
④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67
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71
1) 통일 전·후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의 비율	71
2)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72
3)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73
V. 결론 및 제언	75
1. 결론	75
2. 제언	7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정치교과서 4종 통일대비교육 내용관련 문장 분류표

표 목 차

<표 III-1-1> 분석 대상 정치교과서.....	18
<표 III-1-2 >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내용체계 중 통일에 관련된 부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19
<표 III-2-1> 통일 대비 관점의 연구를 위한 분석 준거 표.....	23
<표 III-2-2> 정치 교과서 내 통일대비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유형과 의미.....	26
<표 III-2-3> 교과서 본문 내 통일대비에 해당하는 문장의 관점별 대표적 인문장 예시.....	27
<표 III-2-4> 관점에 따른 정치 교과서 통일에 관한 분야 별 서술의 특징	29
<표 III-2-5>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준거 표.....	30
<표 III-2-6> 위의 표(표III-2-2-2)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장의 예시...	31
<표 III-2-7> 통일대비 관한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32
<표 III-2-8>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을 위한 분석틀	33
<표 IV-1-1> 통일대비 관점에 대한 분석 결과.....	35
<표 IV-1-2>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 문장의 대표적인 예.....	39
<표 IV-1-3>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40
<표 IV-1-4>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에 따른 대표적인 문장..	48
<표 IV-1-5>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대표적인 문장.....	51
<표 IV-1-6> 통일대비 관점에 관한 분야별 문장 분석.....	52

<표 IV-1-7>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58
<표 IV-1-8>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부정적 관점에 관한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60
<표 IV-1-9>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69
<표 IV-1-10>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70

그 립 목 차

<그림 III-1> 정치교과서 통일관련 단원에서 통일대비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20
<그림 IV-1-1> 정치교과서 본문 내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 문장 수...	36
<그림 IV-1-2> 통일 전·후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의 비율.....	37
<그림 IV-1-3>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 관점 별 분석.....	41
<그림 IV-1-4>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별 문장 분석.....	44
<그림 IV-1-5>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교과서 내용구성에 따른 관점 별 문장 분석.....	45
<그림 IV-1-6>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	49
<그림 IV-1-7>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에서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	54
<그림 IV-1-8>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56
<그림 IV-1-9>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61
<그림 IV-1-10>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64
<그림 IV-1-11>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67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행위는 국내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으며, 이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지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인식 속에는 언제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남한입장에서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4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통일을 달성했다고 하여도 통일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이해득실문제가 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왔다. ‘보수우파’ 정권으로서의 정체성과 실용주의를 표방한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대북지원보다는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고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협력의 추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¹⁾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실시한 언론

1) 여기서 통일세는 단순한 세금징수의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통일준비와 과정, 재원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가자는 것임을 통일부에서 밝히고 있다. 통일세는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통일

사별 여론조사에서 통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23.2~39.2%에 그쳤다. 반면 반대의견은 최고 55.3~58.7%에 달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이는 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재정지출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가치’에 적게는 수조에서 많게는 수 백조에 이르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세를 비롯한 통일관련 정책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정책인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판단 근거와 통일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통일교육은 넓게 보면 정치사회화에 포함된다. 정치사회화²⁾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정책에 대한 식견을 제공해주기에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은 서로 상관성이 있다.

특히 현 중·고등학생의 통일교육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장차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통일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통일한국에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동시에, 정 반대의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살던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사회전반의 통합을 이루어서 발전된 한국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니게 될 것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에서 통일준비에 대하여 비켜가기 힘든 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재원조달의 문제에서 국민의 동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2) 여기서 정치사회화란 “정치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 그 사회의 체제규준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재영, 『정치사회화론』 (서울: 대왕사, 1993)
- 3) 남북한이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순조롭게 통일되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총 3220억(약 380억원) 그러나 북한 급변과 붕괴에 따른 통일 시 비용은 향후 30년간 총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통일비용 추정치다. 급작스러운 통일의 비용이 순조로운 통일의 비용보다 무려 7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KDI 연구결과의 골자다. <출처: 세계일보 허범구 기자 (2010.8.15일자) “KDI 추정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기사 인용 >

이러한 통일교육은 주로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수업’은 교과서가 중심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⁴⁾

청소년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앞으로 통일세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매체이며 교과서 상에서 서술되고 있는 문장들은 청소년들이 장차 통일에 대해 갖는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관점들 사이에서 사고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할 과업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래 통일 후의 모습이 유토피아적인 이상화된 모습으로 서술되어 통일의 당위성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반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모습이 문제점과 남한의 일방적인 손해 쪽으로 치우쳐서 청소년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청소년 시기에 교과서는 양 쪽의 측면을 균형적으로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장차 통일세대의 성인이 되어 통일문제 관련 국가 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 정치 교과서 4종 별로 나타난 통일대비 교육에 관련된 단원인 「V.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향후 국가 정책 전반의 통일문제를 인식하는 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앞으로 청소년

4) “귀하께서는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에서 ‘학교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20.5%)보다 고등학생(32.5%)이 높았고, 고등학생 학교급별 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40.8%)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교과서와 참고서적에서도 중학생(6.0%) 보다 고등학생(10.2%)로 높았으며, 고등학생 학교급별 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10.9%, 2학년 5.9%, 3학년 16.2%를 보였다. <출처: 통일교육원. 청소년 통일 의식조사 (2009.12) 참고>

이 당면할 통일관련 사안(통일 준비, 통일 이후에 한국사회)에 대해서 교과서 서술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된 사고를 제공하는 지, 아니면 균형적인 사고를 제공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교과서 통일대비 교육에 관련된 단원인 「V.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에서 ‘앞으로의 통일준비,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서술부분이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하였을 때 둘 중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서술되고 있는 가? 아니면 양측에서 균형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가?

둘째, 위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별 서술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관점에 따른 분야의 비중이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 아니면 관점에 따른 분야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 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1) 현 정부 이전 대북정책의 양상

진보개혁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10년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의 두 차례 개최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의 단계’ 또는 ‘단순한 평화공존’을 넘어서 ‘협력의 단계’ 또는 ‘통일을 향한 접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대중 정부가 초기부터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군사적 긴장이나 무력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교전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주듯이 하나의 무력충돌 사태가 국지전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또한 남북관계의 위기를 불러오지도 않았으며, 이후 남북 사이에는 예상하지 않은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부관계는 선언적으로는 적대관계를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화해 이후의 냉랭한 관계’에서 개성공단사업 진전,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시행,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회복·발전을 위한 물질 기반을 제공하는 ‘협력의 체계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협력이 체계화됨에 따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도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지만,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의 체계화’ 또는 ‘적대관계의 실질적 종식’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박순성, 2008).

이는 남한, 북한 양측이 평화적 노선을 취한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 각이 취하고 있는 정반대의 사상적 차이 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관련한 현실성에 관한 논의를 통일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현 정부에서의 대북·통일정책과 통일전망연구

현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통일정책은 한국 외교 7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한국 외교 7대 원칙이란,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발전시키는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강화, 경제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코리아’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핵·개방·3000’을 구상하여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

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국민들 또한 대북 인식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이 보이게 된다.

정한울과 정원철(2010)에 의하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동일문항으로 추적해 온 안보체감도 질문 결과 11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5%(매우 불안 34.9%+약간 불안 46.6%)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0여일이 지난 12월 18일 조사에서는 79.6%(매우 불안 30.4%+약간 불안 49.2%)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0여일이 지난 12월 18일 조사에서는 79.9%(매우 불안 30.4%+약간 불안 49.2%)로 불안감이 여전했다.

대북·통일에 관련된 인식은 현재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대북관련 사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관련된 준비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과거 이전의 대북간의 관계, 통일 정책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일대비 교육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수(2010)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최소 3,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전경련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 규모가 독일이 통일한 이후 20년간 지출한 비용인 3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단계별로 나누면, 통일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19.1%)이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46.5%)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 초기 비용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내(0.0%, 응답자 없음)의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5.0%)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통일은 머지않아 우리세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면하는 통일세와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 후의 한국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통일대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권 때 발표된 대북·통일전망에 대한 최근 연구들 중에서 김강일(2010)에 의하면,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운데,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될 거라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로 인하여 핵문제로 인한 북한의 어려움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북한은 미국,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2010년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행위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은 미국, 한국과의 관계가 결국 더욱 악화되었다.

박형중(2011)에 의하면, 대남 대외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

되며, 남북 간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리라는 것이 국책연구기관⁵⁾의 대체적 전망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어렵게 하는 여러 조건이 2011년에도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대남도발과 남북관계 긴장이 지속될 요인이 크다는 것으로 추측되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대북 군사능력을 과시하여 위협행동을 취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전보다는 현저히 개선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 간 상황이 진전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되기도 힘든 암중모색 상황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1년 만에 남·북한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되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속 북한을 상대하는 남한입장에서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아가 통일에 관한 준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 시국 상태로 인하여 통일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함께 살아갈 대상인 북한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 강요한 나머지, 통일 한국이 마치 이상향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도 안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북한을 오로지 적으로만

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1년도 전망』 pp. 96-110; 외교안보연구원, 『2011 국제정세 전망』, pp. 29-48; 통일연구원,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2011.1.1).

생각하는 부정적인 관점에 편향되면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공존은 순식간에 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균형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통일대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통일교육과 정치교과서에 관한 연구

1) 통일교육과 정치교과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비롯한 인식과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일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정책은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정치문제로 인식되어 정치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다른 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늘 중립성을 유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안희경(2006), 김한목(2005)이 있다.

안희경(2006)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정치교과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합리화 시키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과거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는데 적절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마다 양과 서술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이러한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 7차 정치교과서가 정치사회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6) 안희경(2006). 정치사회화 매체로서의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내용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전 교육과정 때보다 민주시민양성에 적합한 사고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교과서의 통일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다.

김한목⁷⁾(2005)은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태도유형은 정치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지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신뢰와 효용성 인식을 증진하고 교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사와 교과서에 대한 신뢰감과 효용성 인식이 부족하며 상호수업과 사회교육기관의 활용 빈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교과서에 통일내용을 담았다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지,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떤 관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하여 정치교과서가 이를 배우는 학생들의 정치사회화(정치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정치교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치교과서에서 다루고

7) 김한목(2005).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있는 주제에 대한 서술된 내용들이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의식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통일교육과 정치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정치교과서와 통일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과 의미를 알아보았다.

정치교과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과 연관된 정치교과서 분석은 이후신(2009), 박성근(2006), 윤기환(2010)으로 전체 정치교과서 내용분석 연구에 비하여 수적으로 열세한 편이었다.

이후신⁸⁾(2009)은 남북한관계 관련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방안 개발을 목표로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를 사회과 교육목표의 영역인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를 세분화하여 지식은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성되고, 기능은 지식획득 기능, 탐구 기능, 문제 해결기능이며, 가치·태도는 합리적인 가치태도, 민주주의적 가치태도, 사회 참여적 가치태도로 나누어서 교과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관계 관련 교육이 지식전달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가치교육 부분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분석틀을 세분하게 나눈 바람에 그 요소 간의 차이가 모호하며, 통일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흥

8) 이후신(2009).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남북한관계 관련 내용분석과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박성근⁹⁾(2006)은 고등학교 정치교과의 교육목표와 통일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치 교과에서 통일교육의 위치를 알아보며, 7차 교육과정 속에서의 교육 내용들을 분석하고 통일교육의 변화되어야 될 점을 연구함으로써, 사회과 전체 교육목표와 통일교육에 관한 교과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정치과 교육의 목표와 통일 교육의 방향과 정치과 교육과의 관계는 단순한 문헌연구에 대한 정리일 뿐,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또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서로 비교한 것에 그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했다는 것에 그 근거가 모호하며, 정치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전체 사회과 교육과정내용과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윤기환¹⁰⁾(2010)은 7차 정치교과서의 경우 민족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통일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는 점은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었으나,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실천 영역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분석틀을 만들어 놓고서 이를 활용하여 정치교과서의 4종 전체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술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9) 박성근(2006). 고등학교 정치과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윤기환(2010).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정치, 도덕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도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내용요소별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이 아닌 출판사 별로 서술 상 문제가 보이는 한 두 개의 지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비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분석틀과 연구 분석의 연관성이 모호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일관련 내용이 배로 많은 도덕교과서위주로 내용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치교과서분석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연구 목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현 정치, 도덕 교과서에서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언급 또한 정치교과와 도덕교과를 하나로 묶어서 별개의 교과가 마치 한 개의 과목인양 개선방향이 전개되어 오히려 어느 교과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연구의 취약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통일한국을 살아갈 시민양성을 위한 정치교과서 내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첫째, 통일교육이라는 전체 큰 카테고리로서 통일단원을 다루었을 뿐, 장차 앞으로 통일세대들에게 필요한 통일대비교육에 대한 내용 분석이 없었다.

둘째, 분석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후신(2009), 윤기환(2010)은 사회과 교육목표의 영역인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이후신(2009)의 경우에는 통일단원 내용을 분석틀로 분석한 뒤, 통일단원의 내용이 지식전달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할 뿐 가치·태도 측면에서 어떤 내용의 가치·태도를 주는 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또한 분석내용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분석내용을 원본 그대로가 아닌 임의적인 내용정리로 올리는 바람에 그 본 내용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표현, 문장의 길이)이 무시되어있

다. 윤기환(2010)의 경우는 이후신(2009)과 비슷한 분석틀을 제시해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분석에 대한 수량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정작 통일교육에서 필요한 요소인, 통일의 당위성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되어야 할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에 대한 것은 등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교과서 본문에서 서술되고 있는 문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관점에 주목하여, 이에 관한 분석틀을 만들어 4종 정치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점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분류하여 수치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치교과서 통일단원에서 서술되는 문장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이 균형적으로 제공되어 앞으로 통일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정치교과서를 통해 통일 대비에 대한 올바른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기를 지향하는 바, 지금까지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를 하게 되었다.

Ⅲ. 분석대상과 분석준거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4종의 통일관련 단원 「V.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의 교과서 본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Ⅲ-1-1> 분석 대상 정치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저자명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주)	최병모 외
	(주) 법문사	김왕근 외
	(주) 지학사	이승종 외
	(주) 천재교육	강세종 외

정부 통일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장차 통일세대로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현재 청소년들이 접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매체 중에서도 연구대상을 ‘교과서’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교사에 의한 학교 수업 강의에 의해서 이며, 이를 통해 학교 수업에 있어서 교사가 교육을 행할 때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에 이르러서야 정치 사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¹¹⁾ 직접적인 교수에 의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통

일교육의 막바지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내용이 중학교 때보다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 시각들의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도 정치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향후 통일세대로서 통일과 연관된 국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바탕은 ‘정치사회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형성된 교과목이 바로 정치교과서이기 때문이다.

<표Ⅲ-1-2 >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내용체계 중
통일에 관련된 부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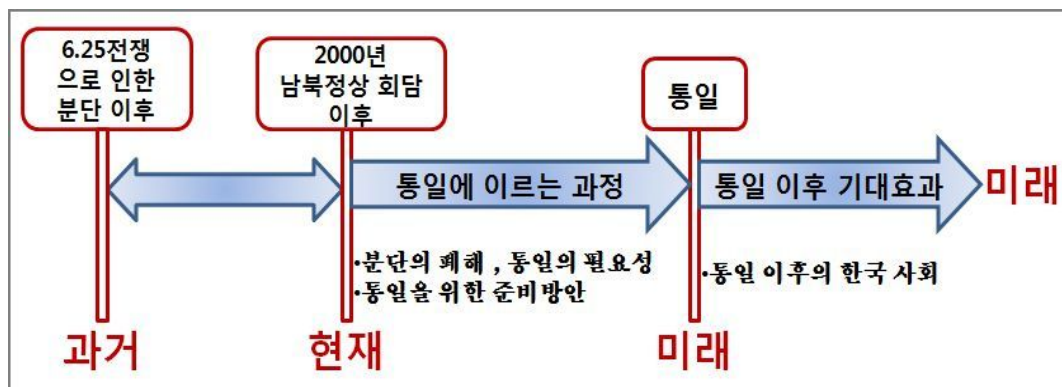
영역	주제	내용요소
V. 정치발전의 과제	·정치발전의 의미	·정치발전의 의미 ·민주정치발전의 과제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사회 통합 ·복지실현 ·인권의 확대 ·국제 협력 ·시민의 자율성 신장
	·민주적 정치 문화	·민주적 생활원리 ·시민사회와 정치참여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민족 통일의 과제	·통일 문제의 성격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

11) 정치사회화에 관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화는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는 것이다. 유아기(幼兒期)에 형성된 태도는 그 후 각종의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고 강화된다. 어려서 가족의 영향으로 형성된 태도는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할 수도 있으나, 학교교육이나 직장에서의 경험은 그 호감을 번복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9), P. 91.인용>

앞의 <표Ⅲ-1-2>은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내용체계 중 통일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치교과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영역(대단원)은 “Ⅴ.정치발전의 과제”이고, 이에 속하는 4가지 주제(소단원) 중에서도 ‘통일 문제의 성격’과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내용요소로 하는 “민족 통일의 과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중에서도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Ⅲ-1>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Ⅲ-1> 정치교과서 통일관련 단원에서 통일대비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통일 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먼저 시기적으로 분류해보면, 이는 교과서 통일 관련 단원에서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후(과거)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 =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만들어진 시기¹²⁾)에서 앞으로 통일

문제(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부터 미래 통일이 발생 ‘이전’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일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로 내용을 정리하여 시기적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교과서 본문의 내용 구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출판사별 교사용 지도서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2010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참고하여 교과서 내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의 공통요소들을 묶어 본 결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교과서 내에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이라는 내용구성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기대효과”는 교과서 내에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라는 부분에 해당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구성 중에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을 분석대상으로 보며,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서 본문에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분석대상으로 본다.

12) 제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 2003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2004년 3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정치교과서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대(對)북한 관련 관계개선에 기여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사건이 있었고, 이에 관한 내용은 4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었다.

2. 분석준거

제 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통일 대비에 관한 관점 연구는 다음의 분석 준거에 의해 살펴본다.

첫째, 제 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4종의 본문 내용에서 먼저, 통일대비교육과 연관된 내용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의 수를 살펴 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각각 세부 내용 별 분석 가능한 문장의 수를 파악하여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 중에 어느 쪽의 진술이 많은 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통일대비에 관한 정치교과서 본문 문장에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그리고 비교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분류한 뒤에 통일대비에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중 어느 쪽의 관점이 높은 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문장들 중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진술 중에 어느 쪽이 높은 지 살펴본다.

셋째, 통일대비에 관한 정치교과서의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문장들 중에서 분야 별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관점별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중 어느 분야가 높은 지 살펴본 뒤,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서는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각각에서는 분야별로 어느 쪽이 높은 지 살펴본다.

이를 통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이 학생들에게 균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여 개선할 점은 제안한다.

아래의 <표 III-2-1>는 통일 대비 관점의 연구를 위한 분석 준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표 III-2-1> 통일 대비 관점의 연구를 위한 분석준거 표

주제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고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민족 통일의 과제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통일 이후 기대 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위의 표가 만들어진 것은 통일대비에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분석준거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관점에 관한 분류

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관점인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써 나누었으며, 현대사회를 섭렵하고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이므로 분야별 분류를 이처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 관점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고’ 그리고 분야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비(非)분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표 III-2-1>를 최종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을 받았다. 그러한 검증의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준거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앞의 <표 III-2-1>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정치 교과서 통일대비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정치 교과서 「V.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에서 통일대비교육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련된 교과서 본문내용에서 나타나는 관점을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그리고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통일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적 측면만 가르치게 되면 통일의 이상적 측면만 알게 되어 훗날 통일세대로서 통일한국을 살아갈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에 장애가 될 것이다. 반대로 통일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만 치우쳐서 지도하게 되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되고, 대치상태인 남·북관계와 통일 이후의 남·북간 화합에 있어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통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배워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균형적으로 지녀야 한다.

결국 어느 한 쪽의 관점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일의 긍정적 관점과 통일의 부정적 관점에 대해 균형적으로 배우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통일에 관련된 올바른 정치의식을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로 분류하였고,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 또는 한 문장 내 모두 포함된 문장은 “비교”로 분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정치교과서 본문의 통일대비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유형과 그 유형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정치 교과서 내 통일대비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유형과 의미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고
·통일의 당위성 ·통일을 촉진하는 요소 ·통일의 긍정적 효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 ·통일의 부정적 효과	·긍정적 관점도 부정적 관점도 아닌 문장 ·한 문장 내 긍정적, 부정적 관점 모두 서술한 문장

위의 표에서 나타낸 그대로, 교과서 본문에서 통일대비에 관련된 문장이 통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던가, 통일을 촉진하는 요소를 내포하거나, 통일을 통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진술하고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 관점”의 문장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과서 본문내용의 문장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거나 통일로 얻는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경우와 한 문장에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속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분류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통일대비에 해당하는 교과서 본문 문장을 관점에 따라 나눈 대표적인 예시를 나타낸 것이 다음 <표Ⅲ-2-3>와 같다.

<표Ⅲ-2-3> 교과서 본문 내 통일대비에 해당하는 문장의

관점 별 대표적인 문장 예시

주제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고
민족 통일의 과제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 통일의 필요성	▶이러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50년 이상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다. (법문사, P.248)
		통일을 위한 준비 방안	▶이제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천재교육, P.266)	▶그러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천재교육, P.268)	▶이미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천재교육, P.266)
	통일 이후 기대 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통일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71)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의 사회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72)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자. (법문사, P.249)

2) 관점에 따른 정치 교과서 통일대비에 관한 분야 별 서술의 특징

통일대비에 관한 교과서 본문 내용을 관점에 따른 분석 가능한 문장 내에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별로 나누어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기 위하여 다음 <표Ⅲ-2-4>를 준거로써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약,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문장 중에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비(非)분야”란에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준거를 얻기 위한 관점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에 해당하는 분야별 서술의 특징을 추려내기 위해 4종의 정치교과서와 이에 따른 교사용지도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2010 통일문제 이해』, 『2010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2010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을 부수적으로 활용하여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대표적인 문장의 예로 설명하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법문사, P.249)”는 교과본문 내용구성에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해당되므로, 이와 동시에 시기적인 분류에서 통일 전(前)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긍정적 관점에 해당된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국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곧, 통일을 이루어야 국방비가 절감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표Ⅲ-2-4>를 통하여 ‘경제 분야’의 긍정적 관점임을 결론내릴 수 있다.

관점에 따른 정치교과서 통일대비에 관한 분야별 서술의 특징은 다음의 표 <표Ⅲ-2-4>와 같다.

<표Ⅲ-2-4> 관점에 따른 정치 교과서 통일에 관한 분야 별 서술의 특징

관점 분야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경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비용 확보 * 국방비 절감 * 다른 분야의 지출 확대 제공 * 남·북한 상호보완으로 경제이익증대 * 대남·대북 관련기관 유지비용 감소 * 세계 경제의 중심지 *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 *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증가 * 경제적 격차 심화 * 경제적 기반 붕괴 * 재정 적자 심화 * 인플레이션 발생 * 인구이동에 따른 혼잡비용 증대 * 조직체제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 * 사회적 통합을 위한 비용증가
정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으로 인한 전쟁재발가능성 * 분단으로 인한 무력충돌가능성 * 남북 대치로 인한 대외신용도하락 * 분단으로 인한 권위주의 체제등장 * 통일로 인한 정국안정 * 통일로 인한 다원주의 발전 * 국제적 위상 상승 * 통일에 유리한 국제정세 변화 * 적극적 통일정책, 통일교육 강화 * 북한 교류·협력 증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 심화 * 남북한 교육과정 이질화 문제 * 이질적 제도와 법 체제 개편문제 * 국제정치영향으로 인한 난제 * 북한 무력 도발로 인한 평화통일장애
사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 * 통일로 인한 사상과 학문의 보장 * 민주주의 발전 *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 전쟁 위협의 해소로 인한 불안감소 * 내부적 역량증가로 인한 통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이질성 극복 미흡 * 북한주민들에 대한 편견발생 * 체제 부적응 계층의 발생 * 범죄, 투기 등 사회혼란 증대 * 남북 지역갈등 심화

이에 대한 분석준거 표는 다음 <표Ⅲ-2-5>와 같으며, 이 분석준거 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장의 예시를 <표Ⅲ-2-5>의 표에 적힌 기호순번에 따라 나타낸 것이 뒤의 <표Ⅲ-2-6>과 같다.

<표Ⅲ-2-5>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준거 표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①	·	②	·	·	·	⑥	·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③	·	·	·	·	⑦	·	·
통일 이후 기대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④	⑤	·	·	⑧	·	⑨	·

<표Ⅲ-2-6> 위의 표(표Ⅲ-2-5)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장의 예시

해당 기호	해당하는 문장의 내용
①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휴전선이나 서해5도 등에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법문사, P.249)
②	▶이산가족의 고통이 크다. (법문사, P.249)
③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 지역도 미·소 냉전체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제 동북 아시아인이 이 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천재교육, P.268)
④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은 정국의 안정과 다원적 민주주의 발전을 정착시킬 수 있다. (법문사, 249)
⑤	▶첫째, 통일이 이루어져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줄여 사회복지나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법문사, P.249)
⑥	▶남북정상회담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
⑦	▶그리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의 배양의 배양이 통일준비의 초석이 된다는 의식 하에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천재교육, P.266)
⑧	▶이 밖에 남북한 언어 중에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 남북한 학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의 교육문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천재교육, P.271)
⑨	▶우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생활 방식의 차이, 즉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재교육, P.271)

3) 분석틀

이상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1) 통일대비 관한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정치교과서 본문 내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이 될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 <표Ⅲ-2-7>과 같다.

<표Ⅲ-2-7> 통일대비 관한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출판사 명칭 (총 0개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문장 번호	문장내용	문장 위치
통일에 이르는 과정 (0문장)	분단의 폐해·통일의 중요성 (0문장)			
	통일을 위한 준비 방안 (0문장)			
통일 이후 기대효과 (0문장)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0문장)			

(2)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가능한 문장을 위한 분석틀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대상이 되는 문장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 <표Ⅲ-2-8>과 같다.

<표Ⅲ-2-8>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을 위한 분석틀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긍정적 관점 (문장번호입력)				부정적 관점 (문장번호입력)				비고
		정 치	경 제	사 회	비 분 야	정 치	경 제	사 회	비 분 야	
통일에 이르는 과정 (0개)	통일의 필요성 (0개)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0개)									
	소 계									
통일 이후 기대효과 (0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0개)									
총 계 (0개)										

IV. 주요 결과 및 논의

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정치교과서 본문 내에 서술된 통일대비에 관한 문장들이 통일 전·후에 따른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문장의 비중이 각각 어떠한지,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 요소인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해당하는 문장의 비중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이 문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관점에 따른 문장 비율과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통틀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한 개의 표로 정리한 것이 <표 IV-1-1>와 같다.

<표 IV-1-1> 통일대비 관점에 대한 분석 결과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정치	경제	사회	비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비 분야	비고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통일에 이르는 과정 (108개)	분단의 폐해 · 통일의 필요성 (33개)	4.5 (18)	3.5 (14)	12 (48)	5 (20)	0 (0)	0 (0)	1 (100)	0 (0)	7 (21.2)
		25 (75.8)				1 (3)				
	통일을 위한 준비 방안 (75개)	6.5 (32.5)	1 (5)	8.5 (42.5)	4 (20)	18 (51.4)	3 (8.6)	3 (8.6)	11 (31.4)	20 (26.7)
		20 (26.7)				35 (46.6)				
	소 계 (108개)	11 (24.4)	4.5 (10)	20.5 (45.6)	9 (20)	18 (50)	3 (8.3)	4 (11.1)	11 (30.6)	27 (25)
		45 (41.7)				36 (33.3)				
통일 이후 기대 효과 (26개)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26개)	2 (14.3)	7.5 (53.6)	3.5 (25)	1 (7.1)	1 (11.1)	0 (0)	5 (55.6)	3 (33.3)	3 (11.5)
		14 (53.8)				9 (34.7)				
총 계 (134개)		13 (22)	12 (20.3)	24 (40.7)	10 (17)	19 (42.2)	3 (6.7)	9 (20)	14 (31.1)	30 (22.4)
		59 (44)				45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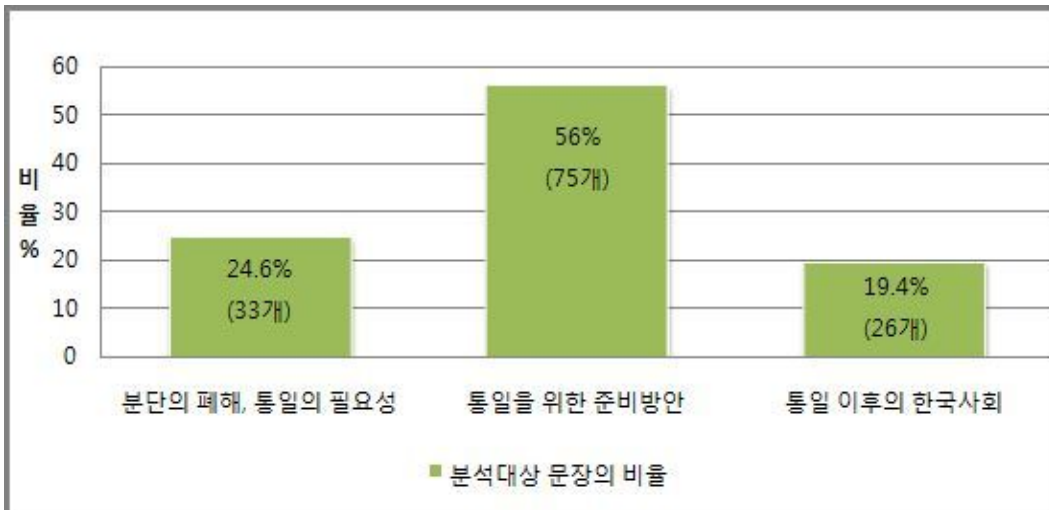
*주: 수(%)

위에 명시된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 대상 문장의 수

먼저 제 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4종의 통일관련 단원 「V.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에서 통일대비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에 관한 분석 대상 문장들을 교과서 본문 내에서 선별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정치교과서 본문 내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 문장 수
(총134개)



<그림 IV-1-1>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7차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4종 출판사에서 통일대비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은 총 134개(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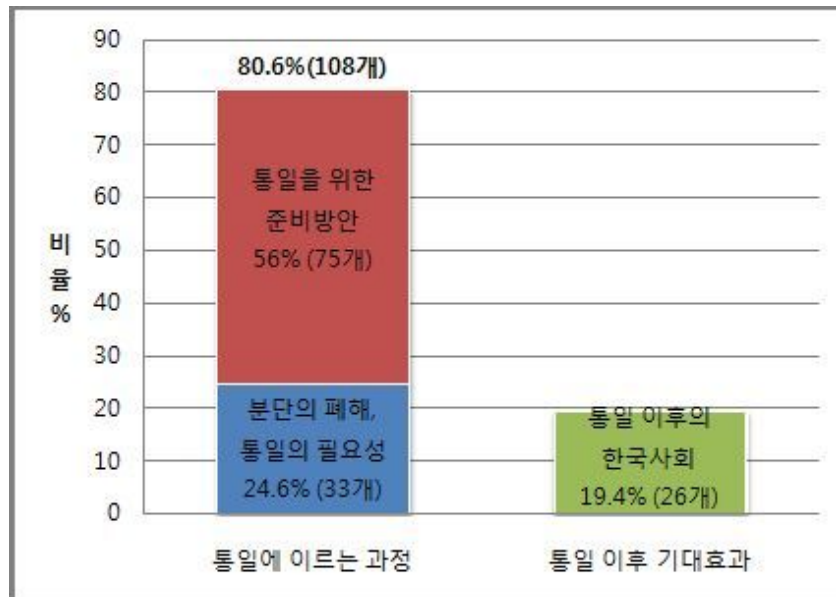
위의 표를 보면, 교과서 본문 내에서 통일대비에 관한 교과서 내용구성에
 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이렇게 3가지 내용구성을 이룬다.

이에 해당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은 33개
 문장(24.6%),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은 75개 문장(56%),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는 26개 문장(19.4%)이며,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분석 가능한 문장
 수가 다른 것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일성립을 기준으로 통일 전에 해당되는 “통일에 이르
 는 과정”과 통일 후에 해당되는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IV-1-2>은 통일 전·후에 따라 분류한 분석내용이다.

<그림 IV-1-2> 통일 전·후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의 비율



<그림 IV-1-2>을 보면,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교과서 본문 내용구성에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해당되며, “통일 이후 기대효과”는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해당된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수는 108개 문장으로 전체 문장의 80.6%이며,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수는 26개 문장으로 전체 문장의 19.4%이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본문 내용이 통일을 달성한 이후(19.4%)보다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80.6%)에 상당히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문장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IV-1-2>과 같다.

<표 IV-1-2>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 문장의 대표적인 예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세부 내용	대표적인 예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p>▶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의식의 차이도 큰 편이다. (법문사, P.248)</p> <p>▶이러한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p> <p>▶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지학사, P.233)</p>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p>▶그러므로 국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통일 방안을 생각할 때는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법문사, P.247)</p> <p>▶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 정치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교과서, P.267)</p>
통일 이후 기대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p>▶첫째, 통일이 이루어져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줄여 사회 복지나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법문사, P.249)</p> <p>▶남북한의 통일은 한편으로는 분단 상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천재교육, P.271)</p> <p>▶또한 분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던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것이며, 이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1)</p>

2)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앞서 살펴본 통일대비 관점에 따른 분석 대상 문장을 <표Ⅲ-2-2>를 토대로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그리고 ‘비교’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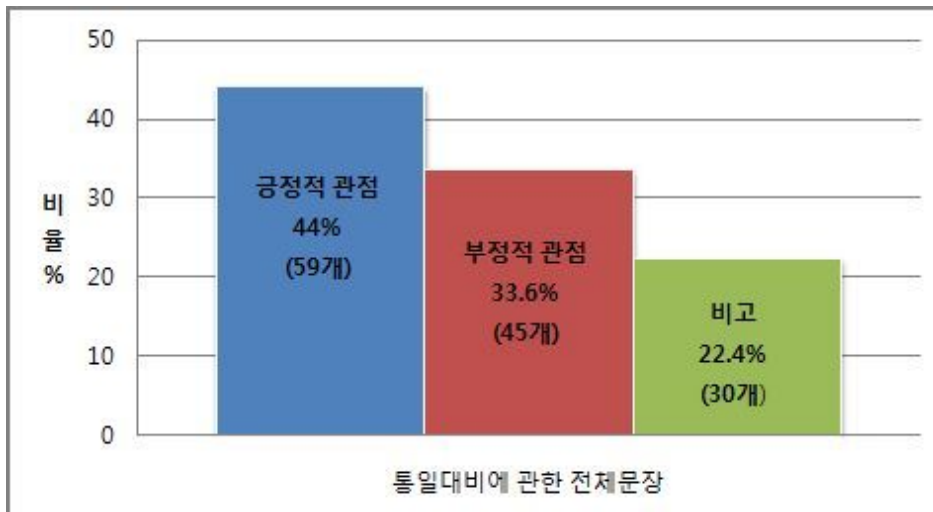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구성	관점에 따른 문장 분류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교	총 계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25개	1개	7개	33개
	·통일의 필요성	(75.8%)	(3%)	(21.2%)	(100%)
	통일을 위한 준비 방안	20개	35개	20개	75개
	소 계	(26.7%)	(46.6%)	(26.7%)	(100%)
		45개	36개	27개	108개
		(41.7%)	(33.3%)	(25%)	(100%)
통일 이후 기대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14개	9개	3개	26개
		(53.8%)	(34.7%)	(11.5%)	(100%)
총 계		59개	45개	30개	134개
		(44%)	(33.6%)	(22.4%)	(100%)

이 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 관점 별 분석

통일대비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총 134개(100%)를 관점 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V-1-3>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 관점 별 분석



<그림 IV-1-3>에서 보면, 긍정적 관점이 59개 문장(44%)이고, 부정적 관점이 45개 문장(33.6%), 비고는 30개 문장(22.4%)로 긍정적 관점이 높다.

교과서 본문 내에서 통일대비에 관한 문장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관점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고려할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문사, P.249)”
“셋째, 국가 발전의 요청의 측면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대결로 인한 분단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구된다.(천재교육, P.266)”
“이렇듯 통일은 우리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71)”

교과서 본문 내에 위와 같은 문장들을 통해서 통일은 긍정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비에 관하여 긍정적 관점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의 사회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72)”
“남북한의 통일은 한편으로는 분단 상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천재교육, P.271)”
“독일은 동서독 간의 교류가 우리보다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경제적 수준 차이와 사회·문화적 격차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지학사, P.240)”

그러나 위에서처럼 통일은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관점과는 별개로 사실자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술되고 있는 문장(‘비교’에 분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

되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50년 이상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다. (법문사, P.248"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위치에 인해 국제 정치에 민감함 영향을 받아왔다.“ (지학사,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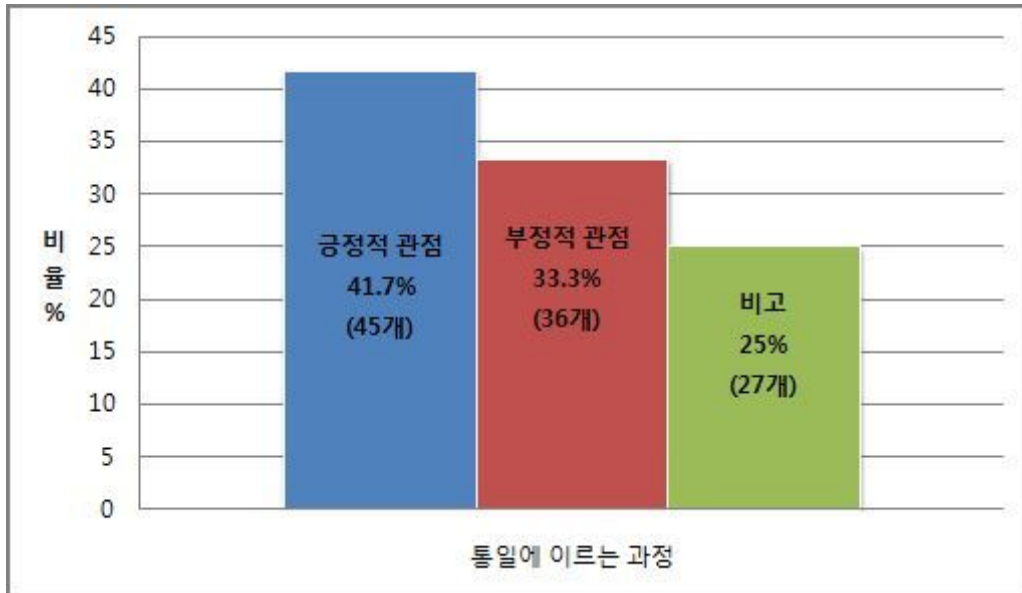
(2) 통일 전·후에 따른 관점 별 문장 분석

앞에서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 문장을 통일 전·후에 따른 시기적 분류를 통하여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내포하는 관점을 분석하였다.

(i)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총 108개 문장(100%) 중에서 긍정적 관점이 45개 문장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부정적 관점이 36개 문장으로 전체의 33.3%에 해당하였고, 비고의 경우는 27개 문장으로 전체의 25%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4>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별 문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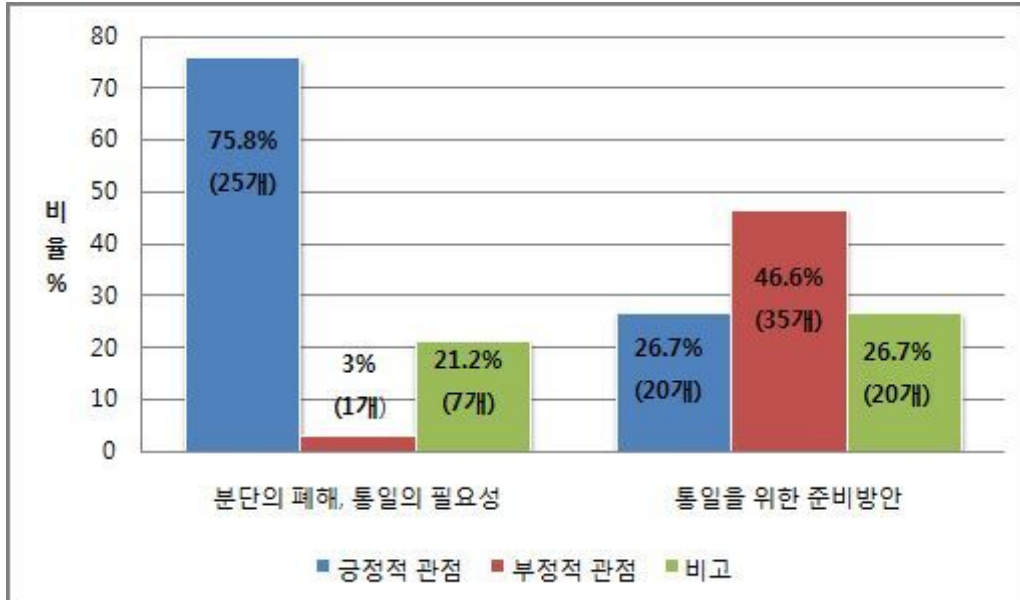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에서는 긍정적 관점(41.7%)이 부정적 관점(33.3%)보다 10%정도 더 높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하는 교과서 본문 내용구성에 해당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보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 관한 또 다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IV-1-5>와 같다.

<그림 IV-1-5>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교과서 내용구성에 따른
관점 별 문장 분석



위의 <그림 IV-1-5>를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긍정적 관점이 높다고 하여도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은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은 긍정적 관점(75.8%)이 부정적 관점(3%)로 긍정적 관점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대하여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지고 있는 문장들 중 대표적인 것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져야 한다. (지학사, P.233)”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천재교

육, P.247)”

“둘째, 인도주의적 요청의 측면에서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재교육, P.265)”

“이러한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통일 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

위와 같이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진술은 다양한 반면에, 부정적 진술은 4종교과서 전체에서 다음과 같이 단 한 개뿐이었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

반면에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경우에는 부정적 관점(46.6%)이 긍정적 관점(26.7%)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천재교육, P.268)”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공산화 혁명 전략, 북한의 핵 보유 여부 및 미사일 개발 문제, 점차 커지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전략으로 인한 지역 내 정치적·군사적 긴장 등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8)

“이처럼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여전히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지학사, P.238)”

이처럼 부정적인 관점이 높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비추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며, 거기에는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 즉,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문장들이 긍정적 관점이 더 높은 것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밑바탕이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해낼 수 있다는 동기와 의지를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강조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면서 분단된 지 벌써 50년이 지나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하다. (법문사, P.252)”

그러나 위의 문장을 통해 생각 해 보면, 우리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하는 당위성을 느낌과 동시에 상당한 격차로 인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합하는 데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의 대표적인 예를 <표 IV-1-4>로 나타낸 것이다.

<표 IV-1-4>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관점에 따른 대표적인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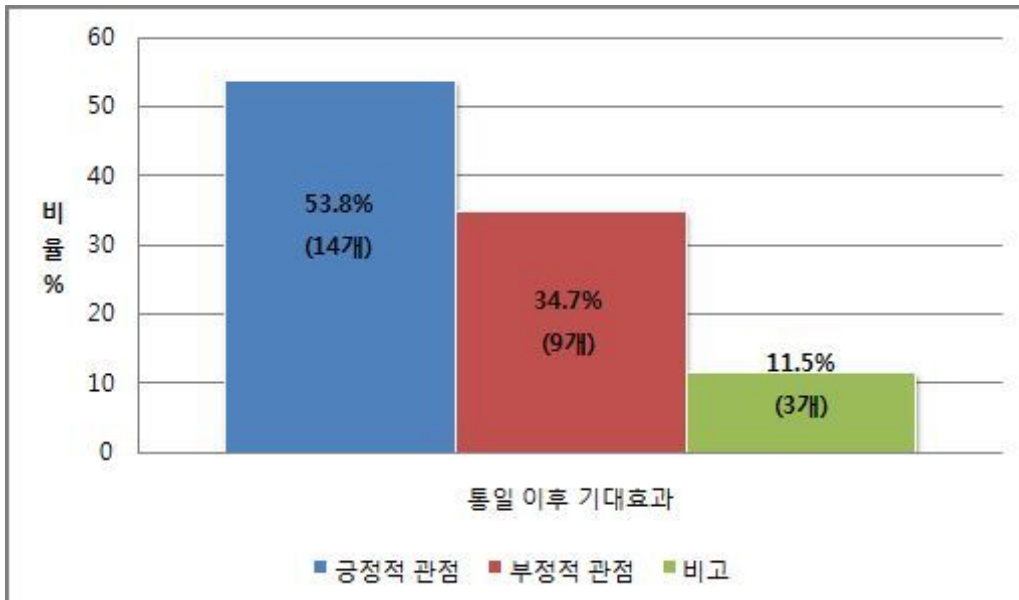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관점에 따른 대표적인 문장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	<p>▶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고려할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문사, P.249)</p> <p>▶셋째, 국가 발전의 요청의 측면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대결로 인한 분단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구된다. (천재교육, P.265)</p>	<p>▶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p>	<p>▶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50년 이상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다. (법문사, P.248)</p>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p>▶이러한 노력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1)</p>	<p>▶그리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의 배양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된다는 의식 하에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천재교육, P.266)</p>	<p>▶이미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천재교육, P.266)</p> <p>▶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 정치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다. (지학사, P.235)</p>

(ii)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

앞에서 이어,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문장들의 관점 별 문장 분석을 하였다. “통일 이후 기대효과”는 교과서 구성에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와 일치한다.

분석 결과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IV-1-6>과 같다.

<그림 IV-1-6>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



통일 전·후에 따른 시기적 분류에서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총 26개 문장(100%) 중에서 긍정적 관점이 14개 문장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

다. 그리고 부정적 관점이 9개 문장으로 전체의 34.7%였으며, 비교의 경우는 3개 문장으로 전체의 11.5%에 해당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과서에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이다. 이는 통일을 이룬 뒤의 한국사회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일종의 가상적 시나리오로 볼 수 있으며, 주로 독일통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진술되어져 있다. 그러나 4종의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에 관련 진술된 내용의 전체 134개 문장 중에서 이에 관한 문장은 26개로, 전체의 19.4%밖에 상당히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여부를 떠나서 가장 먼저 통일 이후의 관련 진술의 분량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독일통일의 사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남·북한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배경, 특색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문장 분석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관한 관점 별 대표적인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관점에 따른 문장 분류 (예)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비교
통일 이후 기대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p>▶ 즉, 큰 폭으로 줄어드는 남북한의 국방비를 경제 개발이나 사회 복지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간에 인력과 자원, 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1)</p> <p>▶ 그리하여 통일 국가로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의 상승으로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볼 수 있다. (법문사, P.249)</p>	<p>▶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 갈등은 커다란 사회 문제이지만 통일 후에는 남북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지역 차별, 혹은 지역 감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천재교육, P.271)</p> <p>▶ 또한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천재교육, P.271)</p>	<p>▶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자. (법문사, P.249)</p>

3) 통일대비 관점에 관한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의 수

통일 전·후에 따라서 분류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대효과”를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 분류한 뒤, 이를 <표Ⅲ-2-4>를 토대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각각을 비교하였다. 이에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6> 통일대비 관점에 관한 분야별 문장 분석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교과서 본문 내용 구성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비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비 분야
통일에 이르는 과정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4.5 (18)	3.5 (14)	12 (48)	5 (20)	0 (0)	0 (0)	1 (100)	0 (0)
	통일을 위한 준비 방안	6.5 (32.5)	1 (5)	8.5 (42.5)	4 (20)	18 (51.4)	3 (8.6)	3 (8.6)	11 (31.4)
	소 계	11 (24.4)	4.5 (10)	20.5 (45.6)	9 (20)	18 (50)	3 (8.3)	4 (11.1)	11 (30.6)
통일 이후 기대 효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2 (14.3)	7.5 (53.6)	3.5 (25)	1 (7.1)	1 (11.1)	0 (0)	5 (55.6)	3 (33.3)
총 계 (104개)		13 (22)	12 (20.3)	24 (40.7)	10 (17)	19 (42.2)	3 (6.7)	9 (20)	14 (31.1)

*주: 수(%)

앞의 <표 IV-1-6>에서 문장의 개수에서 0.5가 더해진 것은 한 문장 내에 두 가지 분야가 함께 언급된 경우에 한 문장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기하여 0.5씩 각각의 분야에 합산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지학사, P.233)”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라는 사회 분야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경제 분야가 혼용되어 한 문장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 0.5문장, 경제 분야에 0.5문장으로 각각 합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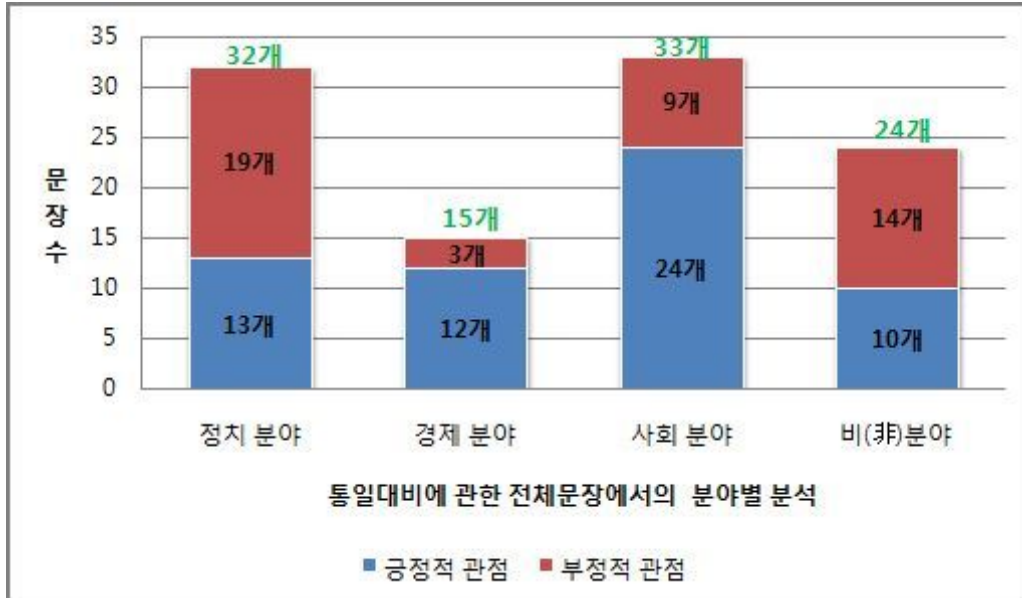
<표 IV-1-6>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대상 문장

통일 대비에 해당하는 내용요소인 해당하는 분석 가능한 문장 수 총 134개 중에서 <표Ⅲ-2-3>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분석 가능한 문장의 수는 관점의 유형 중에서 ‘비교’를 제외한 총 104개(100%)이다

다음 <그림 IV-1-7>은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에서 관점에 따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IV-1-7>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에서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대상 문장



우선 위의 표에서 보면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이 33개(31.7%)로 제일 많으나, 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이 32개(30.8%)인 것과 비교해 보면 두 분야의 차이는 미비하다. 그러나 다음 그래프를 보면, 경제 분야의 분석 가능한 문장 수가 15개(14.4%)로 사회 분야와 정치 분야가 약 2배 많다.

이는 분야별 구성에 있어서 정치와 사회는 균형을 이루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진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7>에서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 문장 중에서 긍정적 관점의 경우에는 사회분야가 24개(40.7%)로 비중이 제일 크며, 그 다음으로 정치 분야 13개(22%)와 경제 분야 12개(20.3%)로 서로 비슷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분야가 10개(17%)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 문장들의 긍정적 관점에서는 사회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2개정도 높았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해서 사회분야에서의 긍정적 서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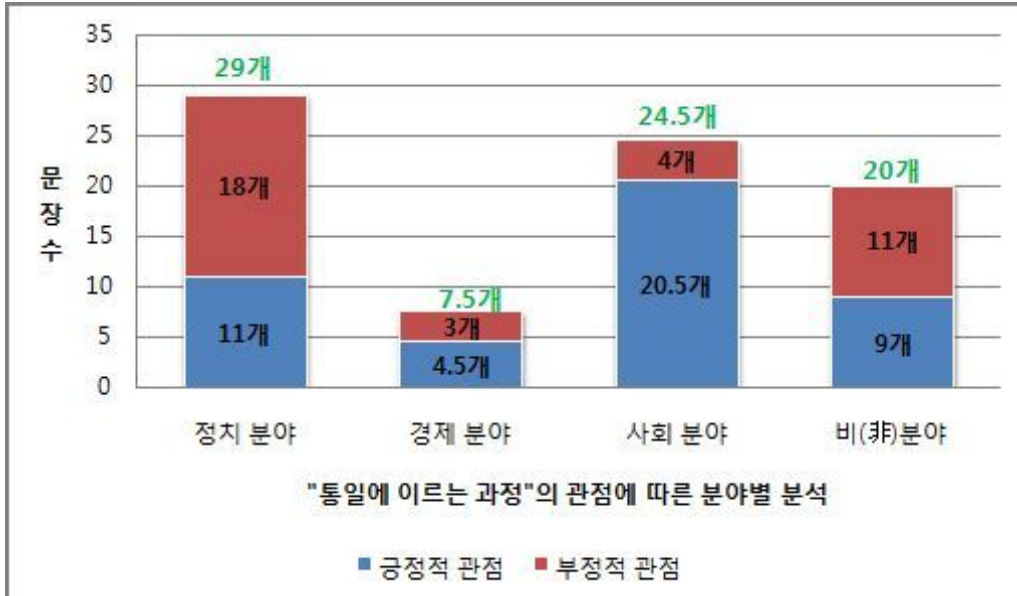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 문장에서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 분야가 19개 문장(42.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비분야가 14개 문장(31.1%), 사회 분야가 9개 문장(20%), 그리고 경제 분야(6.7%)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하여 통일대비에 관한 부정적 진술이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많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협소했음을 알 수 있다.

(2)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통일 전·후에 따른 시기적 분류를 기준으로,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분류한 뒤에, <표Ⅲ-2-3>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문장의 수를 분석하였다.

이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IV-1-8>와 같다.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관점여부에 관계없이 분야별로 보면 정치 분야가 29개(35%), 사회 분야가 24.5개(30.6%)로 비중이 서로 비슷하지만 경제 분야는 7.5개(16.7%)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림 IV-1-8>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위의 그림에 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i)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 대한 분야별 문장 분석

<그림 IV-1-8>에 나타난 데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총 문장 수 45개(100%)중에서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사회 분야가 20.5개(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 분야가 11개(24.4%)였으며, 비분야가 9개(20%),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가 4.5개(10%)로 가장 낮았다. (사회 분야 > 정치 분야 > 비분야 > 경제 분야)

특히 위의 <그림 IV-1-8>를 보면,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

(45.6%)이 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24.4%)보다 약 2배,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10%)보다는 약 4배가 높다. 이를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서 사회 분야 쪽으로 쏠림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교과서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장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면,

“남북 간 이질성의 심화도 또 하나의 폐해이다. (법문사, P.248)”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법문사, P.248)”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와 문화면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는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재교육 268)”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의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대한교과서, 274)”

이와 같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대표하는 사회적 분야를 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 별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긍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통일에 이르는 과정	<p>▶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휴전선이나 서해5도 등에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법문사, P.249)</p> <p>▶이는 국제적으로도 남북한 통일의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 P.268)</p> <p>▶넷째, 국제 사회적 여정의 측면에서 21세기는 동북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천재교육, P.265)</p>	<p>▶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 (법문사, P.249)</p> <p>▶셋째, 국가 발전의 요청의 측면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대결로 인한 분단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구된다.</p>	<p>▶첫째, 민주사적 요청의 측면에서 동족 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p> <p>▶지난 분단 50년은 이산가족들에게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천재교육, P.265)</p> <p>▶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이질화된 생활 양식들을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4)</p>	<p>▶특히 분단의 성격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고, 그 이념의 차이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폐해는 매우 컸다. (법문사, P.248)</p> <p>▶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고려할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문사, P.249)</p>

(ii)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부정적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앞의 <그림 IV-1-8>에 나타난 데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총 문장 수는 36개(100%)를 분야별로 각각 분류한 결과, 정치 분야는 18개(50%)로 분야별 중 제일 높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분야가 11개(30.6%)로 높았으며, 사회 분야가 4개(11.1%),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가 3개(8.3%)로 가장 낮았다. (정치 분야 > 비분야 > 사회 분야 > 경제 분야)

특히,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부정적 관점에서 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50%)이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11.1%)의 약 4배 이상이고,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 비율(8.3%)의 약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관점이 정치 분야에 상당히 높게 치중하여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력 도발을 막고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보태세의 강화도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6)”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정치적 환경을 통일에 유리하게 유도하려면, 주변 4강들에게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법문사, P.247)”

“만약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에 해가 될 경우에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지학사, P.235)”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은 먼저,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4)”

위의 내용을 통하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주변국들의 이익문제가 통일문제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국제 정세와 남·북한의 극단의 정치적 이

넘성향으로 대표하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부정적인 관점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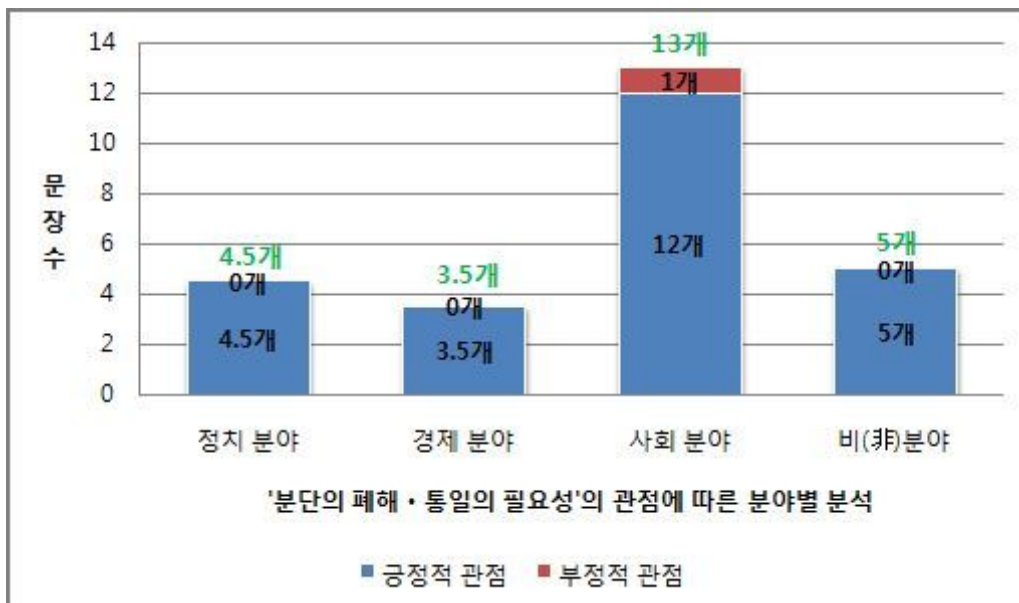
<표 IV-1-8>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부정적 관점에 관한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부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비분야
통일에 이르는 과정	<p>▶한반도의 통일에 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 관문점은 왜 국제 연합군이 관할하고 있는 가? 이러한 의문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대한교과서, P.265)</p>	<p>▶이러한 점은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지학사, P.240)</p> <p>▶이러한 점은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지학사, P.240)</p>	<p>▶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p> <p>▶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와 이질성을 해소하고,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지학사, P.240)</p>	<p>▶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원한다고 해도 통일을 이루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한교과서, P.265)</p>

3)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교과서 본문 내용구성에 해당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따라 나눈 뒤에, 이를 관점에 따라서 분야별로 문장을 분석해보면 다음의 <그림 IV-1-9>과 <그림 IV-1-10>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 IV-1-9>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먼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교과서 본문 내용구성에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IV-1-9>를 보면, 긍정적 관점에서는 사회 분야가 12개 문장(48%) 가장 높다. 그리고 비분야가 5개(20%), 정치 분야가 4.5개(18%)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가 3.5개(14%) 순으로 사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서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진술이 사회 분야에 상당히 높게 치중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간 이질성의 심화도 또 하나의 폐해이다. (법문사, P. 248)”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의식의 차이도 큰 편이다. (법문사, P. 248)”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법문사, P.248)”
“첫째, 민주사적 요청의 측면에서 동족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
“둘째, 인도주의적 요청의 측면에서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천재교육, P.265)”

위의 내용을 통하여 분단으로 인한 피해 중 하나가 남북의 언어, 가치관, 문화 등 서로 극명한 차이로 인한 이질성과 이산가족의 고통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등 사회전반에서 두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그림 IV-1-9>에서 부정적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을 보면, 사회 분야에서 단 한 개의 문장(100%)만 있었고, 나머지 정치, 경제 분야 그리고 비분야에서는 0개(0%)이다.

이에 해당하는 실제 교과서 본문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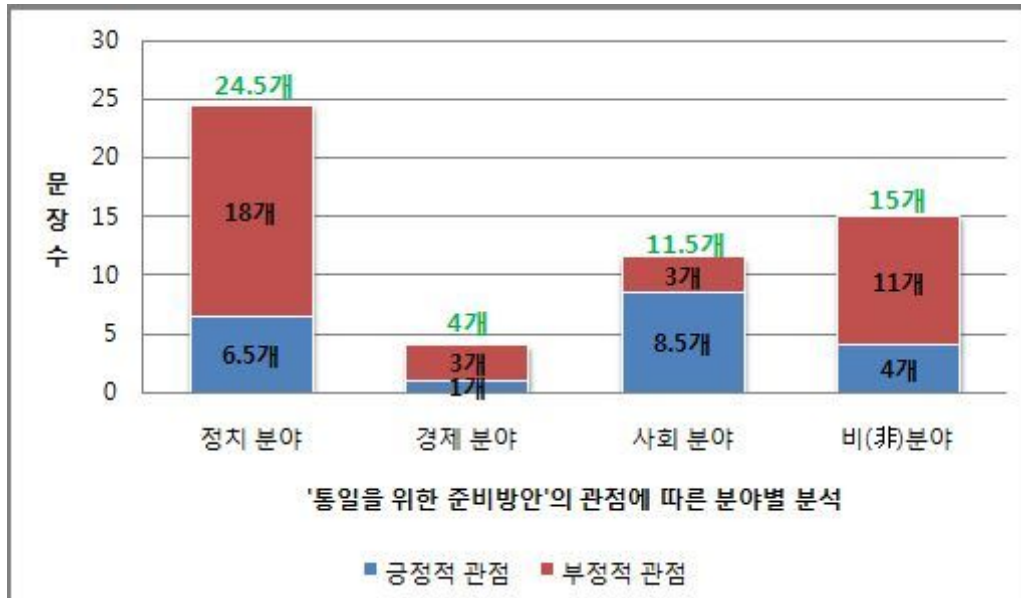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문사, P.248)”

이는 앞에서 언급했었던 대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의 단 한 개의 부정적 진술이며, 이것이 사회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관점의 여부를 떠나 전체 문장에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사회 분야가 13개(50%)로 상대적으로 훨씬 많으며, 그 다음으로 비분야가 5개(19.2%), 정치 분야가 4.5개(17.3%), 경제 분야가 3.5(13.5%)개로 나머지는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의 내용이었으며, 이에 이어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속하는 또 다른 교과서 내용구성인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1-10>과 같다.

<그림 IV-1-10>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위의 <그림 IV-1-10>을 보면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긍정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사회 분야가 8.5개 문장(4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정치 분야가 6.5개(32.5%), 비분야가 4개(2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제 분야는 1개(5%)로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저조하였다.

이어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분야별 분석을 보면, 정치 분야가 18개(51.4%)로 다른 사회와 경제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비분야가 11개(31.4%), 경제 분야가 3개(8.6%), 사회 분야가 3개(8.6%)로 서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관한 실제 교과서 본문에서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와 문화면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는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재교육, P.268)”

“그리고 남북한은 이 과정 속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 (대한교과서, P.274)”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이질화된 생활양식들을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교과서, P.274)”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통일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이질감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들을 완화함에 따라서 결국 통일로 인하여 완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에서 특히, 사회 분야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지학사, P.234)”

“만약 (주변강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해가 될 경우에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지학사, P.234)”

“한반도의 통일에 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 판문점은 왜 국제 연합군이 관할하고 있는 가? 이러한 의문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대한교과서, P.265)”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방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통일은 국제정치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서는 출판사마다 통일을 달성하기위한 준비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특히 정치 분야와 연관을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 정치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교과서, P.267)”
“또한 통일 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구조, 예를 들어 정부 형태와 의회 구성과 관련된 선거방법, 행정조직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천재교육, P.271)”

앞에서 언급했던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위의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로 국내 정치가 기본적으로 잘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 통일을 위한 준비가 쉽지 않으며, 이를 멀리 보면 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써 작용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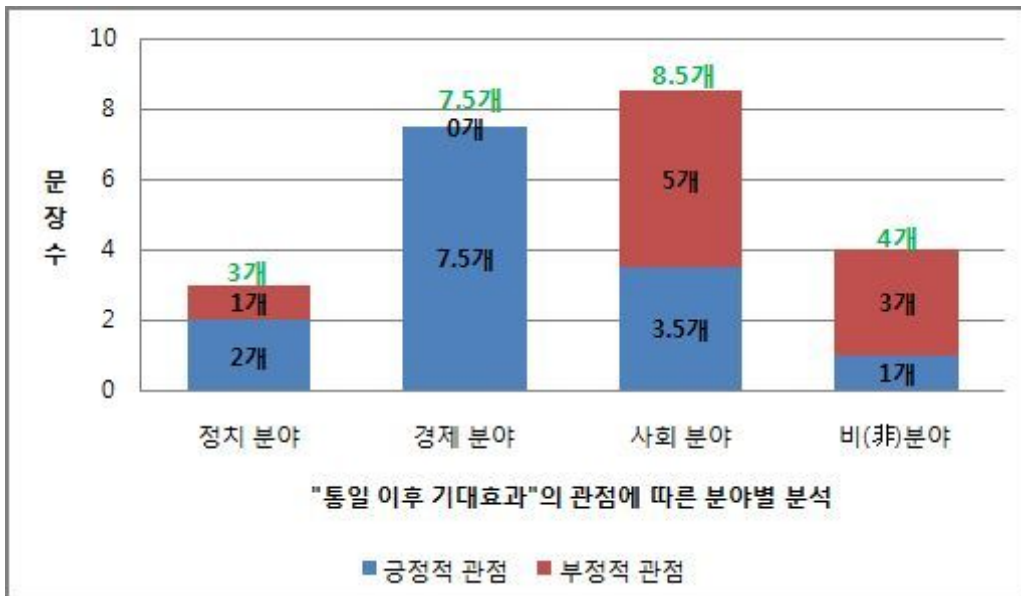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의 관점여부를 떠난 전체 문장에 대한 분류별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IV-1-10>에서 나타난 데로 정치 분야가 24.5개(44.5%)로 나머지 경제와 사회 분야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비분야가 15개(27.3%)로 비중이 컸으며, 사회 분야가 11.5개 (20.9%)이고, 경제 분야는 4개(7.3%)로 가장 낮았다. 여기에서도 사회 분야에 편중된 면을 보인다.

특히 통일의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금적적인 면이 가장 큰데 반해 이에 대한 서술 즉,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서술이 상당부분 적다는 점은 앞으로 통일대비교육에 있어 정치교과서의 개선방안으로 보인다.

4)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중에서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를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분류한 뒤에, <표Ⅲ-2-3>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문장의 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Ⅳ-1-11>이다.

<그림Ⅳ-1-11>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관점에 따른 분야별 분석



위의 <그림Ⅳ-1-11>을 보면,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서 관점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분야가 8.5개(37%), 경제 분야가 7.5(32.6%)로 비중이 서로 비슷하였고, 정치 분야가 3개(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문장 분석

앞의 <그림 IV-1-11>을 보면,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분석 가능한 총 문장 수는 14개(100%)이다. 그 중에 경제 분야가 7.5개(53.6%)로 가장 높았고, 사회 분야가 3.5개(25%)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정치 분야가 2개(14.3%), 미분야가 1개 (7.1%) 가장 낮았다. (경제 분야 > 사회 분야 > 정치 분야 > 미분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 중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서술이 사회 분야보다 약 2배, 정치 분야보다 약 3배 이상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는 부분이다.

<p>“첫째, 통일이 이루어져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줄여 사회 복지나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법문사, P.249)”</p> <p>“둘째, 남한은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하고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월한 반면, 북한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법문사, P.249)”</p> <p>“이러한 남북 간의 상이한 자원 구조를 상호보완하면 상당한 이익을 거 둘 수 있다. (법문사, P.249)”</p> <p>“통일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한교과서, P.271)”</p>

이를 통해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우선 군비 지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통일 시장 규모 확대와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활성화 그리고 남·북한 상호보완으로 얻게 되는 경제 이익의 증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 별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 <표 IV-1-9>와 같다.

<표 IV-1-9>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긍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긍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이후 기대효과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은 정국의 안정과 다원적 민주주의 발전을 정착시킬 수 있다. (법문사, P.249)	▶첫째, 통일이 이루어져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줄여 사회 복지나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법문사, P.249)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고 인권의 신장을 기할 수 있다. (법문사, P.249)

(2)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문장 분석

앞의 <그림IV-1-10>에서 나타난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부정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분석 가능한 총 문장 수는 9개(100%)이다. 이 중에서 사회 분야가 5개(5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분야 3개(33.3%), 정치 분야가 1개(11.1%)였으며, 경제 분야가 0개(0%)로 현저하게 낮았다. (사회분야 > 미분야 > 정치 분야 > 경제 분야)

특히 주목할 점은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관한 부정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4중 정치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위에서 언급했던 데로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관한 긍정적 관점에서는 경제 분야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통일은 경제를 부강

하게 만든다는 편협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남·북한이 경제적 격차가 분단 이후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직 후에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고, 실업자 증가, 조직체제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 사회적 통합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정치교과서의 본문에서 빠진 점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로 보여 진다.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 별 대표적인 문장은 다음 <표 IV-1-10>과 같다.

<표 IV-1-10>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부정적 관점에 해당하는 분야별 대표적인 문장

통일 전·후에 따른 분류	부정적 관점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이후 기대효과	▶이 밖에 남북한 언어 중에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 남북한 학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의 교육 문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천재교육, P. 271)	없음	▶우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생활 방식의 차이, 즉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재교육, P.271)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관한 균형적인 사고를 제공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정치사회화의 기반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에 대한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 나타나는 관점과 분야에 따른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 전·후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의 비율

정치교과서 4종의 본문 내 통일대비에 관한 분석대상이 되는 총 문장 수 134개(100%)를 통일성립을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구성을 분류한 결과, 교과서 본문 내용이 통일을 달성한 이전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108개(80.6%)로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26개(19.4%)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과정 못지않게 통일 이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치우친 진술은 학생들이 앞으로 통일이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 전·후의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통일을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과정에 관한 내용서술을 많다보니 이러한 요인이 배경이 되어 서술 비중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문장 분석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 중에서 긍정적 관점이 59개(44%)로 부정적 관점인 45개(33.6%), 비고에 해당하는 30개(22.4%)보다 높았다. 그리고 이를 통일 전·후에 따라 시기적으로 분류한 결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긍정적 관점이 45개(41.7%)로 높았으며, 부정적 관점이 35개(33.3%), 비고가 27개(25%)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서도 긍정적 관점이 14개(53.8%)로 부정적 관점인 9개(34.7%), 비고 3개(11.5%)보다 높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긍정적 관점이 높은 것은, 제 7차 교육과정 형성 시기의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 시기는 진보개혁진영이 정권을 잡은 뒤에 대(對) 북한 관련 관계 개선에 기여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6·15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전쟁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을 의미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들이 정치 교과서 내 남·북한 통일관련 전반에 대한 내용 기술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으로써 작용되어 그 결과 긍정적 관점이 많아졌다고 본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해당되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 특성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하여 교과서 집필 당시의 대(對)북 분위기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학생들에서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성향에 구속되지 않는 통일대비에 관한 균형적인 관점이 교

과서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교과서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긍정적 관점이 높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은 부정적 관점이 높았다. 이를 통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것이지만 통일을 이루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을 학생들에게 무의식 중에 교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통일대비에 관한 관점에 따른 분야별 문장 분석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에서 사회 분야(31.7%)와 정치 분야(30.8%)의 비중은 비슷하였으나, 경제 분야(14.4%)가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이를 관점별로 분류하면, 긍정적 관점에는 사회 분야가 높았고, 부정적 관점은 정치 분야가 높았다.

통일 전·후에 따라 분류하면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정치 분야(35%)와 사회 분야(30.6%)의 비중은 비슷하였지만, 경제 분야(16.7%)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긍정적 관점에서는 사회분야가 높았으며, 부정적 관점은 정치 분야가 높았다. 이어서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사회 분야(37%)와 경제 분야(32.6%)의 비중이 비슷하였고, 정치 분야(1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긍정적 관점에서는 경제 분야가 높았으며, 부정적 관점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 분야의 비중이 0%였고, 사회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와 별개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교과서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분단의

폐해·통일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전체 문장에서 사회 분야(48%)로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긍정적 관점의 경우에도 사회 분야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부정적 관점의 경우에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문장이 아예 없었고, 사회 분야에서 단 한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의 내용요소인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44.5%)로 나머지 경제(7.3%)와 사회 분야(20.9%)보다 높았다. 긍정적 관점의 경우에는 사회 분야가 높았으며, 부정적 관점의 경우에는 정치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즉, 지금까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통일대비에 대한 진술의 과정을 추론해 보면, 통일을 달성하는 준비에 있어서 이질감 극복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가장 효과적이며, 결국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외적인 정치적 사안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을 달성한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남북의 상반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앞으로 통일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거라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서처럼 “통일 이후의 기대효과”에서 경제 분야의 부정적 진술이 교과서 본문 내에 0개인 것은, 학생들이 통일세대로서 당면할 통일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이익만 있는 걸로 자칫 오해할 여지가 강하다. 따라서 분야별로 균형적인 통일대비 내용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통일세를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책이 현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의 통일관련 단원인 「V. 정치발전의 과제 4. 민족통일의 과제」를 중심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구성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와 관점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비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는 정치교과서 통일단원이 앞으로 청소년들이 향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치교과서 4종의 본문 내 통일대비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통일 전·후에 따라 시기적으로 분류한 결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통일을 달성한 이후인 “통일 이후 기대효과”의 내용비중보다 4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런 불균형적인 내용구성은 학생들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 살아야하는 한국사회에 대비하는 데 부족하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에 관한 내용진술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이에 관한 비중이 컸을 거라고 추측된다.

둘째, 통일대비에 관한 전체문장을 대상으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관점에서 서술된 내용이 더 많았다. 통일 전에 해당하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에 해당하는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에서도 모두 긍정적 관점이 높았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형성시기의 배경(진보개혁진영의 정권을 잡은 뒤의 ‘6·15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되어 남북의 상호신뢰를 구축한 사건)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권의 성향과 대북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대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야별 분석결과, 통일대비 전체 문장과 통일 전·후에 관한 시기적 분류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교과서 내용구성에 포함되는 ‘분단이 폐해·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에서 각각 그 비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통일 이후 기대효과”에서 긍정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부정적 관점에서는 4종 교과서 본문 내 0개이었다. 이는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이익만 있는 걸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통일관련 경제적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대비에 관한 분야별로 균형적인 내용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심화선택과목 중 하나인 정치교과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치교과서의 통일 단원 역시도 향후 통일세대로서 살아가는 준비를 위한 정치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일에 관한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을 교과서에서 제공되도록 교과서 본문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제언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대(對)북간 관계는 국내외적으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이지만 현실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실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관한 준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앞으로 함께 살아갈 대상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만약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 강요한 나머지, 통일 한국이 마치 이상향으로 느껴지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며 통일 이후에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는 다는 식의 부정적인 관점에 편향되면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공존은 순식간에 깨어지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르게 객관적인 의식을 갖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학교교육의 역할이다. 그 중, 학교교육의 주요 도구이자 매체인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그리고 특히, 정치사회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교과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향후 통일세대로서 통일정책에 올바르게 사고하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여 통일한국에서의 민주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본 연구인 정치교과서의 통일대비교육 내용에 관한 관점에 관한 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시행하는 시기에 의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9교육과정의 새로운 정치교과서로 분석하지 못하고 현재상으로 수업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로 분석을 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취지는 교과서 내용이 교과서가 집필되는 교육과정 형성시기의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형적인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7차 정치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통일에 관한 객관적인 진술에 관한 부족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의 ‘객관적인 진술’이란, 앞서 말한 ‘균형적인 관점’이라고 하여 교과서 진술을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이렇게 각각을 50대 50으로 똑같은 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실제 통일에 관한 어떤 측면에서 있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 존재하는 데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긍정적 진술만 돋보이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2009교육과정의 정치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말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09교육과정 고등학교1학년 사회교과서에서 통일단원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관점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의 사회교과서에서는 그나마 한 페이지 남짓 있었던 통일관련 내용이 이번 2009 교육과정의 새로운 사회교과서 전체에서는 아예 통일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전 학년 일반사회영역에서도 통일단원은 빠져 있었다. 즉, 2009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에 있던 통일에 관한 교과서 내용구성

이 누락된 것에 비해 국제 사회, 세계화에 관한 내용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정치교과에 관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데 통일에 관한 언급은 영역별 내용에서 (5) 국제 사회와 정치였으며,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데로 장차 통일사회에서 살아갈 청소년에게 통일교육은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초등수업에서 배운 일방적인 통일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닌, 중·고등학교에서도 보다 고차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영역에서 보다 사회교과에서 이를 다루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통일비용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 지, 남·북 이질감 극복 또는 남·북의 통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적 사고로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세중 외(2004),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서울: 천재교육.
- 김강일(2010). 2010년 북한 정세와 북중관계 전망. 연변대학동북아연구소.
- 김왕근외(2008).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서울: 법문사.
- 김재영(1993). 『정치사회화론』. 서울: 대왕사. pp.24.
- 김한목(2005).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교육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내용체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1). 『2010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1년도 전망』 pp. 96-110; 외교안보연구원, 『2011 국제정세 전망』, pp. 29-48; 통일연구원,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의미
- 박성근(2006). 고등학교 정치과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실태와 과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성(2008). KNSI 통일연구원 현안진단 제111호 이명박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 2008년 2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정책토론회'의 발표.
- 박형중(2011).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2011년 1월 3일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및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서 발표.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2009).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신지영(1989). 중·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경(2006). 정치사회화 매체로서의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종 외(2007).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 이재수(2010).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 예상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제는 통일비용을 고민해야할 시기”. 전국경제인연합 경제정책팀.
- 윤기환(2010).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정치, 도덕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2007).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관련 서술 내용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병모 외(2007).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공(2010). 『2010 통일문제 이해』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공(2010). 『2010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공(2010). 『2010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 ·
- 데일리안 2010.09.26일자 “당장 돈 든다고 통일 논의 외면해야 하나” (변윤재 기자) 기사 인용

ABSTRACT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n Education Contents for the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in Politics Textbooks

Park, Hyun-Hw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unification is a task that we must accomplish one day, but what we will look like after future reunification should not be described as something utopian and idealistic, nor should it simply emphasize its necessity.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reveal the problems with the processes of preparing reunification or what we will look like after reunification, nor should it lean toward South Korea's one-sided loss. This is because it should give South Korean adolescents neither a negative impression of reunification nor a sense of hostility to the North Koreans.

The textbooks, an important medium in students' preparing their lives as a reunification generation, should give them balanced opinions of both aspects, thus enabling them to make right judgment on the national policies regarding reunification issues after they become grown-ups.

Based on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contents of descriptions of the unit related to reunification in high school politics textbooks 「V. Assignments of Political Development 4. Assignment of Reunification」 had balanced perspectives on the

preparation processes leading to reunification, how our society should look like after reunification and what could be the future task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first divided textbook contents into those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n the unit mentioned above and subdivided th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nd notes.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by field, the study divided them again into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could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divided a total of 134 target sentences related to the contents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in politics textbooks into "the processes leading to reunification" and "estimated effects after reunification" according to the period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After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ntents of textbooks focused a lot more on the processes for reaching future reunification (80.6%) than on the situations after reunification (19.4%). This showed that there was difference of descriptions for unified Korean society, compared to the processes leading to reunification.

Second,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politics textbook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from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more positive views than negative ones toward both the processes leading to reunification and Korean society after reunification. It has been estimated that i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inclination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whe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was formed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 at that time. Education for the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should be provided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hat may not be influenced by such political environments.

Third, it has been no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importance between the fields in the entire sentences regarding the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specially, the economic field was given the most positive view in “estimated effects after reunification”, whereas there were no statements regarding the economic field in any of the four politics textbooks. The negative view of the latter may allow students to have a misunderstanding that there would be profits only in economic aspects after reunification. Therefore, it has been believed that it would not be beneficial to students in their proper understanding of economic issues regarding reunification. In this regard, it would be necessary to offer students balanced contents for reunification by field and to provide them with a foundation, upon which they could recognize certain issues objectively.

부 록

-정치교과서 4종 통일대비교육 내용관련 문장 분류표-

법 문 사 (총 32개 문장)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문장 번호	문장 내용	문장 위치
1.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16문장)	1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50년 이상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다.	P. 248 1~2번째 줄
	2	특히 분단의 성격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고, 그 이념의 차이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폐해는 매우 컸다.	P. 248 3~5번째 줄
	3	우선, 남한과 북한이 다른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대립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강력한 결속력과 통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P. 248 6~8번째 줄
	4	그리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지향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가 형성되었고 확실적인 위계질서, 확고한 명령 체계에 순응하는 생활 문화를 초래하였다.	P. 248 8~9번째 줄
	5	남북 간 이질성의 심화도 또 하나의 폐해이다.	P. 248 10번째 줄
	6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의식의 차이도 큰 편이다.	P. 248 10~11번째 줄
	7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좀 완화되었지만 서로 간의 적대감, 혐오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P. 248 11~12번째 줄
	8	이산가족의 고통도 매우 크다.	P. 248 12~13번째 줄
	9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P. 248 13번째 줄

			줄
	10	월북자 가족이나 월남자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아야 한다.	P. 248 13 번째 줄 ~ P.249 1 번째 줄
	11	1990년대 들어와서 서신 왕래 및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P. 249 1~3번째 줄
	12	또한 6·26 전쟁을 겪은 후 전쟁 개발의 가능성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P. 249 4~5번째 줄
	13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휴전선이나 서해5도 등에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P. 249 5~6번째 줄
	14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	P. 249 6 ~ 7 번 째 줄
	15	이러한 분단의 폐해를 고려할 때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 249 8 번 째 줄
	16	남한과 북한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면서 분단된 지 벌써 50년이 지나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하다.	P. 252 1~2번째 줄
2.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11문장)	17	그러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이익이 있을 까?	P. 249 8~9번째 줄
	18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자.	P. 249 10 번째 줄
	19	첫째, 통일이 이루어져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국방비 지출을 줄여 사회 복지나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P. 249 11~12번 째 줄
	20	둘째, 남한은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하고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월한 반면, 북한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이	P. 249 12~13번

		풍부하다.	제 249 13~14번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1	이러한 남북 간의 상이한 자원 구조를 상호보완하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제 249 13~14번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2	셋째, 식량난에 시달려 온 북한은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고, 남 북은 북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3	넷째,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등 수송 수단이 연결되면 남북한뿐 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상품 수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에 있어서 물류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4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은 정국의 안정과 다원적 민주주의 발전을 정착시킬 수 있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5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고 인 권의 신장을 기할 수 있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6	그리하여 통일 국가로서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의 상승으 로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 볼 수 있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7	그러면 독일의 통일 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3.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5문장)	28	그렇다면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은 무엇 일까?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29	통일 문제는 국내 문제 이므로, 국제적인 정세와 무관한 것인 가?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30	그러므로 국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통일 방안을 생각할 때는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 다.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31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정치적 환경을 통일에 유리하게 유도하 려면, 주변 4강들에게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	제 249 14~16번 제 249 16~18번 제 249 19~20번 제 249 20~21번 제 249 21~22번 제 252 5~6번 제 245 5~6번 제 245 7번 제 247 7~8번 제 247 24~26번 제 247

		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32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경험을 통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 252 3~5번째 줄

천 재 교 육 (총 37개 문장)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문장 번호	문장 내용	문장 위치
1.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10문장)	33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내부적 역량도 크게 형성되었다.	P. 265 1~2번째 줄
	34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P. 265 2~3번째 줄
	35	통일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P.265 5 번째 줄
	36	첫째, 민주사적 요청의 측면에서 동족 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P. 265 6~8번째 줄
	37	둘째, 인도주의적 요청의 측면에서 분단에 따른 민족 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P. 265 8~10번 째 줄
	38	지난 분단 50년은 이산가족들에게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P. 265 10~11번 째 줄
	39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P. 265 11~12번 째 줄
	40	셋째, 국가 발전의 요청의 측면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대결로 인한 분단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구된다.	P. 265 12~15번 째 줄
	41	넷째, 국제 사회적 요청의 측면에서 21세기는 동북 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P. 265 15~17번

			제 265 17~19번 제 265
	42	이러한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제 271 1~3번 제 271
2.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6문장)	43	남북한의 통일은 한편으로는 분단 상태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다.	제 271 4~7번 제 271
	44	우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생활 방식의 차이, 즉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 271 7~9번 제 271
	45	독일 통일의 경우 서독이 동독을 실질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독인이 자본주의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했다.	P.271 10 번 제 271
	46	또한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제 271 10~12번 제 271
	47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 갈등은 커다란 사회 문제이지만 통일 후에는 남북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지역 차별, 혹은 지역 감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제 271 13~16번 제 271
	48	이 밖에 남북한 언어 중에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 남북한 학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의 교육 문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66 2~3번 제 266
3.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21문장)	49	이제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266 3~4번 제 266
	50	이미 우리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제 266 4~5번 제 266
	51	이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 266 5~6번 제 266
	52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P. 266 6
	53	첫째, 대내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 및 구현 방법, 통일 이	P. 266 6

	후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7~8번째 줄
54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통일 의식을 높여야 한다.	P. 266 8~10번째 줄
55	그리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의 배양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된다는 의식 하에 경제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P. 266 10~12번째 줄
56	또한 무력 도발을 막고 평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보 태세의 강화도 필요하다.	P. 266 12~13번째 줄
57	둘째, 대(對) 북한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변화를 노력 하여야 한다.	P. 266 14~16번째 줄
58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실무자 접촉과 같은 정치적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 협력 및 민간 부분에서의 스포츠·문화 교류 등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P. 266 16~18번째 줄
59	마지막으로, 대외적 차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P. 266 19~20번째 줄
60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얻어내고 주변국과 통일에 대한 공조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P. 266 20~22번째 줄
61	우리 민족은 분단 후 반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이념과 사상, 제도와 생활 방식, 사고방식,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어 왔다.	P. 268 2~3번째 줄
62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와 문화면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는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P. 268 4~6번째 줄
63	이러한 교류·협력의 확대와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의 영향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P. 268 6~9번째 줄
64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북 아시아 지역도 미·소 냉전 체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제 동북 아시아인이 이 지역의 역사를 주	P. 268 10~13번째 줄

		체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째 줄
65		이는 국제적으로도 남북한 통일의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P. 268 13~14번째 줄
66		그러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P.268 14번째 줄
67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공산화 혁명 전략, 북한의 핵 보유 여부 및 미사일 개발 문제, 점차 커지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전략으로 인한 지역 내 정치적·군사적 긴장 등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P. 268 14~18번째 줄
68		이와 같은 통일 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 271 17~20번째 줄
69		또한 통일 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구조, 예를 들어 정부 형태와 의회 구성과 관련된 선거방법, 행정 조직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P. 271 20~22번째 줄

대한 교과서 (총 35개 문장)

교과서 부문 내용요소	문장 번호	문장 내용	문장 위치
1.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3문장)	70	여러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신문들을 보면, 요즘 고등학생들의 경우 ‘가급적 통일이 되면 좋겠다.’라거나 ‘통일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견해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보다 지배적이라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띈다.	P. 264 1~3번째 줄
	71	따라서, 청소년들의 이 같은 의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P.264 4번째 줄
	72	그렇다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P. 264 4~5번째 줄
	73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할 테고, 사람들끼리 서로 적응하지 못해 분쟁만 더 늘어날 텐데 …” 통일이	P. 271 1~3번째

2.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9문장)		된다면 정말 이렇게 불편한 일만 생길까? 통일이 된다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줄
	74	통일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P.271 4 번째 줄
	75	즉, 큰 폭으로 줄어드는 남북한의 국방비를 경제 개발이나 사회 복지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간에 인력과 자원, 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P. 271 4~6번째 줄
	76	또한 분단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던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것이며, 이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P. 271 6~8번째 줄
	77	남북한 간의 문화적 교류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켜 민족 문화를 다시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P. 271 8~9번째 줄
	78	이렇듯 통일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P. 271 9~10번 째 줄
	79	그러나 1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줄 것이다.	P. 271 11~12번 째 줄
	80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의 사회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P. 272 1~2번째 줄
	81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P.272 2 번째 줄
3.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23문장)	82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원한다고 해도 통일을 이루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P. 265 1~4번째 줄
	83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민족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P. 265 4~7번째 줄
	84	한반도의 통일에 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일까? 판문점은 왜 국제 연합군이 관할하고 있는 가? 이러한 의문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P. 265 8~13번 째 줄
	8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 대전	P. 265

	의 종전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으며, 냉전이 공고히 되는 과정에서 고착화되었다.	14~16번째 줄
86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P. 265 17~18번째 줄
87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주변 강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가?	P. 265 18~20번째 줄
88	이처럼 남북 관계는 국내 정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를 보여 왔으며, 현재에도 그렇다.	P. 267 1~2번째 줄
89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 정치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 267 2~4번째 줄
90	또한 주변국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그로부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이해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P. 267 4~5번째 줄
91	여기서 통일의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통일의 방식과 통일 후 체제에 대한 합의일 것이다.	P. 272 3~4번째 줄
92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73 1번째 줄
93	정치적으로는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P. 273 1~2번째 P.274 1번째 줄
94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질화된 생활양식들을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P. 274 1~2번째 줄
95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의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P. 274 2~3번째 줄
96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P. 274 3~4번째 줄

	97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와 같은 완전한 의미의 통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P. 274 5~6번째 줄
	98	따라서 통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상태까지 계속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P. 274 7~8번째 줄
	99	그리고 남북한은 이 과정 속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감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	P. 274 9~10번째 줄
	100	그렇지 못할 경우 통일 이후 우리는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P.274 11 번째 줄
	101	즉 통일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 274 11~14번째 줄
	102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은 먼저,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 274 15~17번째 줄
	103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P. 274 17~18번째 줄
	104	이러한 노력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다.	P. 274 19~21번째 줄

지 학 사 (총 30개 문장)

교과서 본문 내용요소	문장 번호	문장 내용	위치
	105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단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P. 233 1~2번째 줄
	106	분단이 지속되는 한 전쟁의 위험도 상존하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도 불가피하다.	P. 233 2~3번째 줄

1.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4문장)			줄
	107	아직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으며, 분단은 민족의 행복과 번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P. 2 3 3 3~4번째 줄
	108	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P. 2 3 3 4~5번째 줄
2.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0문장)		없음	
3. 통일을 위한 준비방안 (26문장)	109	한반도의 분단에는 민족 세력의 분열이라는 국내 정치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P. 2 3 4 2~3번째 줄
	110	즉, 분단은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 해결 또한 국제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P. 2 3 4 4~5번째 줄
	111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P. 2 3 4 5~6번째 줄
	112	다음을 통해 국제 정치 상황인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P. 2 3 4 6~7번째 줄
	113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 정치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다.	P. 2 3 5 1~2번째 줄
	114	냉전 시대에는 물론이고 냉전 이후에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4강대국의 정치·경제적 실리가 한반도에 맞물리고 있다.	P. 2 3 5 2~3번째 줄
	115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P. 2 3 5 3~4번째 줄
	116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에 해가 될 경우에는 통일에 대해	P. 2 3 5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5~6번째 줄
117	우리는 4강대국에게 남북한의 통일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4강대국에게 남북한의 통일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그들에게도 이익이 됨을 인식시켜,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P. 235 7~8번째 줄
118	따라서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주체로서 우리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P. 235 8~9번째 줄
119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교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P. 235 11~12번 째 줄
120	앞에서 남북의 교류 현황과 통일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P.238 2 번째 줄
121	남북 교류의 증대는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	P. 238 2~3번째 줄
122	그러면 남북한의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검토해 보자.	P. 238 3~4번째 줄
123	이처럼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 한다.	P. 238 5~6번째 줄
124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는 앞으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P. 238 6~7번째 줄
125	다른 나라들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고, 각국의 통일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자.	P. 238 7~8번째 줄
126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통일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으로 이어지고, 사회문화적 이질성까지 해소하여 남북이 완전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이다.	P. 239 2~4번째 줄
127	독일은 동서독 간의 교류가 우리보다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경제적 수준 차이와 사회·문화적 격차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P. 240 1~2번째 줄

	128	우리나라도 분단이 된 지 반세기를 넘기면서 남북의 정치·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사회·문화적으로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P. 240 2~4번째 줄
	129	이러한 점은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P. 240 4~5번째 줄
	130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와 이질성을 해소하고,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P. 240 6~8번째 줄
	131	남과 북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남북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P. 240 8~10번째 줄
	132	동시에 남북한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P. 240 10~11번째 줄
	133	이러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P. 240 12~13번째 줄
	134	이러한 노력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민족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P. 240 13~14번째 줄